

### 사찰경영지도자 과정 동국대서 1기 입학

국내 최초의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이 개강했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양동훈)은 3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 입학식을 봉행했다.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은 경영이 있는 사찰 운영, 사찰 경영과 증생회향을 목표로 개설됐다.

교수진으로는 성관 스님(동국대 상임이사), 보광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대학)를 비롯해 동국대 경영대학 소속 안종상, 이재환, 유재철, 유석현, 성상현, 이원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와 노부호 서강대 교수, 정석원 조계종단 변호사,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조사 등이 외부교수로 강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의는 입학식 당일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이제는 사찰도 경영이다' 특강을 시작으로 32주 동안 매주 목요일 2강씩 오후 3-6시 진행된다.

한편, 사찰경영전문지도자 1기에는 前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낙산사 정념 스님, 불암사 일면 스님,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상택 스님, 진관사 계호 스님 등이 등록했다.

조동섭 기자

## “소송 조정... 총장 선출은 후순위”

### 서불대 최용준 신임 이사장 선출... 덕해·지옥 스님 갈등으로 학사행정 파행

파행적인 학사행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에 이은 신임 이사장 선출로 새 국면을 맞았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은 3월 17일 이사회의를 열고 최용준 이사(한국교수불자협의회 회장·상지영서대 교수·사진)를 2년 임기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 의에서 최 신임 이사장은 차석회 前 보문 중·고 교장과 팽팽한 접전 끝에 4:3 한 표 차이로 이사장에 선출됐다.

최용준 신임 이사장은 18일 인터뷰에서 “파행운영으로 교계 안팎에 물의를 빚은 서불대의 관선이사 이사장은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다. 근신하는 자세로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최 이사장은 “교과부의 기존 이사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은 객관적인·백지상태의 상황에서 학교를 새로 만들어 가려는 의미일 것”이라면서 “이런 기대 속에서 선출된 이사장직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최용준 이사장은 “보문학원 설립자인 前 이사장 덕해 스님은 훌륭한



한 분”이라면서 “덕해 스님이 서불대를 세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한국불교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건학이념 구현을 바탕으로 교내에 만연한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법인의 의사결정구조를 전원합의제로 선택했다. 최 이사장은 “가급적 이사회에는 이사 전원이 참석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면서 “전원합의제를 기본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준 이사장은 서불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송사 해결을 꼽았다. 현재 서불대는 직원의 퇴직금

소송을 비롯해 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

최 이사장은 “학교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조정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내 구성원 다수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 최용준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최 이사장은 “외부에서 서불대 교원수가 많다. 총장 선출이 시급하다는데 교수1인당 학생수가 줄면 좋은 것이 무엇인 문제냐?”며 “현황 파악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총장 등 인사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덕해 스님과 지옥 스님 측 인사로 양분된 서불대 구성원의 화합에 대해 최용준 이사장은 “소송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구성원간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최 이사장은 “서불대를 비롯한 보문중·고교 등 보문학원 소속 학교들이 참신한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준 이사장은 동국대에서 법학과 학사·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불대는 직원의 퇴직금

처 1984년부터 원주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로 재임중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과 강원도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원주시청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현재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불대는 설립자 덕해 스님과 前 이사장 지옥 스님의 갈등으로 인해 2년 여 동안 파행적인 학사행정이 물의를 빚었다. 2009년 말 소송을 통한 황윤식 총장의 복귀로 성승연 김명권 교수 등 핵심 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총장 등 임기가 만료되고 지옥 스님 측이 거론 총장권한대행 체제로 학사운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0월 14일 파행 운영된 학사행정에 대한 책임과 공익적 이유 등을 들어 서불대 이사 전원에 대한 임명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2010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문학원의 임시이사로 조흥래(교직원공제회 이사·차명호(평택대 교육대학원장)·최용준(상지영서대 교수)·차석회(前 보문중·고 교장)·김복함(대전재능나눔유치원장)·도윤 스님(쌍용사 주지)·오영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을 선임했다.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삼성 홍라희·이재용씨 자승 스님 예방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전무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오찬을 겸해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사서실장 경우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자승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재단의 장학회 출범 후회회가 열렸다.

#### 영동군 영국사 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

영동군(군수 정구복)은 최근 보물 제533호 영국사삼층석탑이 있는 영국사 등 관내 문화재 9개소에 13억8200만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영동군은 매년 두 차례 관내 20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영동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영남대의료원 영불회 캄보디아서 의료봉사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학회인 영불회(회장 한승세)는 3월 19-20일 캄보디아 반테이 민체이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 봉사활동에는 회장 한승세 홍보외과 교수를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 등 30여 명이 참가해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의약품을 나눠줬다.

#### 청도불교사암聯 제4회 청도 유등제 개최

청도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7-21일 청도천변 파랑새 다리 일원에서 제4회 청도 유등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2지신을 형상화한 장엄등 특별전시와 소원등 달기, 유등 띄우기, <반야심경> 탁본체험 등이 펼쳐졌다.

한편, 유등제 행사기간 중에는 청도상설 소화용 경기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청도 소화용축제가 열렸다.

#### 불교아카데미 MY리더스클럽 8기 모집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신성기)는 재가불자 리더십 프로그램인 'MY리더스클럽 8기'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MY리더스클럽 8기'는 4월 1일~7월 1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강의는 △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유마선원 이재열 지도법사 △종교의 미래, 불교의 미래(박광서 서강대 교수) △자비명상 '당신은 마음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 △한국의 문화 아이콘(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논리로 푸는 공의 세계와 반야바라밀(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등 1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02)2278-1087

#### 문화재제자리찾기 슈베르트 피아노곡 '송어'로

슈베르트 피아노곡 '송어'가 '송어'로 정정된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해문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의 명칭 오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교과서부터 '송어'로 바꾸겠다는 회신을 3월 8일 받았다"고 발표했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의 원곡은 독일어로 'Die Forelle'이다. 이는 송어(민물고기)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곡의 영문명 'A Trout' 역시 송어를 의미한다.

사무총장 해문 스님은 “음악 전공자와 음악교사 대부분 슈베르트의 작곡명이 '송어'가 아닌 '송어'라는 정확한 명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는 '송어'를 '송어'로 가르쳐 왔다”며 “경술국치 100년의 시점에서 '일제에 의해 왜곡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송어'란 명칭의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역대 최대 한국불교박람회 성료

2010 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18-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주)제이컨벤션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불교문화산업과 관련한 270여 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19-20일 전시장 무대에서는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구불교방송 음악회 '봄이오소리가'가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더했다.

18일 개막식에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연회회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과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대구 동화사 주

지 허운 스님(대구BBS사장), BBS 김영일 사장,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허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우수한 한국불교의 향취를 느끼고 취약한 불교산업이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은 “전국 단위의 불교박람회가 대구에 열리게 된 것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소년원학생 장학금 일일찾집 열어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3월 17일 청주 북대동 청미음에서 소년원 학생 장학후원금 마련 일일찾집을 열었다.

행사에는 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 자비실현운동본부회장 해광 스님, 백연암 서경 스님, 흥우사 현담 스님, 문수사 진성 스님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김재곤 소장 및 직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전 스님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 연우와함께 조계종과 MOU

#### 수익사업 활성화 모델 창출 나서기로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재희)가 조계종과 수익사업 활성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모델 창출에 적극 나선다.

연우와함께(대표 이재희)는 3월 1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제1기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사업MOU를 체결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인증자격 획득 △사찰·불자 생산 물품 판매 △불자생산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불교생산자인증마크 개발 △판매패의 불교계 회향 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번 MOU에 따라 조계종은 연우와함께에 5억원을 출자하고, 국장급 스님을 책임자로 한 전담지원

반을 구성한다.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착한나눔 선정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1/3씩 주주인 조계종과 중앙신도회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희 대표는 “지금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기업이 없다. 법당에서 쓰는 양초·단주도 90% 이상 타종교 기업제품이다. 불자기업 지원과 제품 소비를 통해 불교계 역량을 결집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영현 선재현의원 원장이 신임이사로 선출됐다.

박선주 기자

신용상업(유)이거슨  
 ■재무장: 신용(보통)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전화: 02-551-0200  
 ■영업시간: 10:00~19:00  
 ■문의: 02-551-0200

##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륵대(운장대)

### 법륵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륵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륵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러지는 법륵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륵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륵대입니다.

**법륵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